

제12과 이익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지막 시간, 오늘은 ‘이익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선택은 ‘이익’에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논리가 가치논리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즉 그 일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익이 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일의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이 ‘이익’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익이 아닌 가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 ()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는 손해를 각오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 ()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시키는 대로 꺾소리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 1:8-16)

→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죽지 않고,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더 뛰어난 성적을 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왕이 준 음식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서 왕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지금 당장 출세를 위한 이익이 아닌, 신앙양심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한 고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본다 해도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앞드려 절하면 종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4-18)

→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생명의 위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못 이기는 척 금 신상에 절하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준 것도 왕이 그들을 아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목숨을 잃는 것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 ()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후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그로부터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만 아니었으면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입니다. 손익계산에서 더할 수 없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무엘상 24:1-7)

→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3) ()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한 여인도 이익이 아닌 가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

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1-9)

→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한 여인, 그 여인에게도 그 향유는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옥합을 결혼 예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옥합은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허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손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당장의 경제적 손해보다 복음의 가치를 위한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2. 나의 삶은 어떠한가?

성경 속의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선택은 어떤지, 나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____)에 집중하라!!

이익에 빠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행위’로 ‘적극적 의지’로 가치에 반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주의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16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8)

세상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9-10)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_____)이 가치를 앞서지 못하게 하라!!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의 것에 물들게 되는 현실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성령의 사람들의 끊임없는 경각은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이 가치를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가치를 앞서면, 불법도 ‘요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2-23)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요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익을 위해 불법을 용인하고 그것을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불법을 행해도 성령의 사람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 (_____)를 각오하라!!

세상은 손해 보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득바득 이익을 보려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다 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16-21)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18-20)

→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17)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은 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0)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